

【논문】

메를로-퐁티의 언어 이론과 철학 개념*

박 신 화

【주제분류】 현대유럽철학, 현상학, 언어철학

【주요어】 메를로-퐁티, 지각, 언어, 표현, 철학 개념, 설립

【요약문】 본 논문은 경험 자체와 경험에 대한 사유 내지 말(하기)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메를로-퐁티의 초-중기 사유를 중심으로 숙고해보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메를로-퐁티는 초기의 주요 저작 『지각의 현상학』에서부터 이 물음을 철학의 근본 문제로 제기했다. 경험 자체와 경험에 대한 사유 내지 말의 관계의 문제는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는 지각과 언어의 관계의 문제이다. 위 저작에서 그는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에 주목해 언어를 분석했고 그 결과 언어를 지각 현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언어의 궁극적인 근거를 언어 이전적 존재인 자기의식[암묵적 코기토]에서 찾음으로써, 자신도 달한 지각과 언어의 구조적 동일성 테제를 스스로 부정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경험[지각]에 대한 사유이자 말(하기)인 철학을 지각과의 관련성이 담보되지 못한 언어적 의미의 자기 증폭 과정처럼 만든 것이었다. 『지각의 현상학』 이후 메를로-퐁티는 표현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함으로써 자신의 종전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비판, 수정해 나갔다. 이제 표현은 구성적 의식의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역으로 의식 자체가 표현적임이 밝혀진다. 이때 설립 institution 개념은 경험에 보편적인 표현의 논리로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메를로-퐁티는 지각과 언어의 구조적 동일성을 결정적으로 확립한다. 표현으로서의 언어는 표현으로서의 지각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이것은 언어가 ‘지각적으로’ 말하는 의미의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창조적 표현 현상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6771). 본고의 3, 4, 5절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Expérience et expression chez Merleau-Ponty*(A.N.R.T., 2011)의 일부를 수정, 보완, 발전시킨 것임.

은 언어의 이러한 지각적 의미의 차원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1950년 대 초-중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표현 연구의 성과는 그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새로운 철학 개념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I. 들어가는 말

철학이란 무엇인가?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철학은 경험에 대해 사유하고 말하는 것이다. 경험에 대한 사유이자 말이라는 의미에서 철학은 우선 사유와 말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경험에 대한 사유‘이’자 말‘이’라는 의미에서 철학은 사유와 말로 ‘존재한다’. 요컨대 철학은 사유와 말을 필요조건이자 ‘존재방식’으로 한다. 때문에 사유와 말을 떠나서 우리가 자신의 경험 안에 다만 몰입해 있는 한 철학은 ‘없다’. 가령, 우리는 늘 주위의 사물들을 지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 지각이 그 자체로 지각에 대한 ‘철학’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지각은 그 자체로만 보면 다만 ‘체험되는 것’일 뿐, 그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반성적 인식도 주지 않는다. 지각에 대한 철학은 오직 현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각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가 자신의 지각 경험을 사유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비로소 존재한다. 그런데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그것이 타당한 한,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제기한다. 곧, **철학이 경험에 대해 사유 내지 말하는 것이라면 철학을 통해 사유되거나 말해진 경험[‘표현된’ 경험]과 그 사유와 말이 애초 표현하고자 했던 경험[‘경험 자체’]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그런데 경험에 대해 사유하고 말하는 것은 비단 철학만이 아닌 까닭에—과학과 문학 등도 경험에 대한 사유이자 말이다—, 사실, 이 문제는 경험에 대한 사유 일반, 말하기 일반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흔히 철학은 경험에 대한 가장 ‘엄밀한’ 사유, 가장 ‘온전한’ 이해를 추구한다고 여겨지므로, 경험(자체)과 이 경험에 대한 표현이 어떤 관계인지의 문제는 여타의 학문 영역과 비교할 때 철학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우리가 보기에 이 문제는 그야말로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경험[철학의 대상]과 경험에 대한 사유 내지 말[철학]의 관계가 해명되지 않고서는 철학이 우리의 경험에 대해 아무리 다양한 사유와 말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유와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결국 미규정된 것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표는 철학의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메를로-퐁티가 어떤 통찰을 보여주었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 메를로-퐁티는 유고로 남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¹⁾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오랜 숙고의 결과를 ‘새로운 철학 개념’으로 제시했는데, 본 논문은 메를로-퐁티에서 철학의 이 근본적인 물음이 새로운 철학 개념에 대한 요구로 귀결되는 그 사유의 과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각의 현상학』²⁾과 함께 특히 195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집필된 메를로-퐁티의 소위 ‘표현의 문제’와 관련한 저술들에 분석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앞서 제기된 경험과 경험에 대한 표현의 관계 문제는 『지각의 현상학』에서부터 문제의 전모가 드러나지만 50년대 초반의 저술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제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한층 심화된 반성을 엿볼 수 있다.

II. 『지각의 현상학』에 나타난 지각과 언어

경험에 대해 사유한다는 것 혹은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경험 자체와 이 경험에 대한 사유 혹은 말은 어떤 관계인가? 『지각의 현상학』에 제시된 이 물음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그 자신이 해당 저작의 중심 테제로 제시한 “지각의 원초성”의 의미를 반추해보는 것이다. 지각의 원초성이란 한 마디로 말하자면 비록 우리의 모든 경험이 지각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지만,³⁾ 원초적 ‘있음 y a’의 형식 하에 드러나는 존재Etre에 대한 경험인 지각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1) Merleau-Ponty (1964).

2) Merleau-Ponty (1945).

3) Merleau-Ponty (1989), p. 83, 85, 87, 88 참조.

가장 근원적인 경험이며, 이런 의미에서 지각이 모든 경험의 기초를 이룬다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이런 의미에서 세계는 데카르트적 의미에서 ‘사유되기’ 이전에 ‘지각되는’ 것이라고 말했고, 지각의 대상은 질료의 차원을 결여한 어떤 관념적 통일성이 아니라 형태심리학Gestaltthéorie이 말하는 ‘형태’, 즉 전체와 부분의 불가분의 통일성이라 말했으며,⁴⁾ 지각의 주체는 정신이나 고전적 의미에서의 ‘의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체성에 뿌리를 박은 ‘지각적 의식’이라고 말했다.⁵⁾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다양한 현상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상의 테제를 증명해보이려 했다. 그는 ‘경험에로의 복귀’라는 자신의 철학적 이념에 따라 주어짐의 대상적 측면, 즉 지각 대상의 부여 방식에 주목했다.⁶⁾ 가령, 우리의 살아있는 신체가 드러내는 많은 측면들, 예컨대 공간성이나 운동성, 혹은 신체도식 schéma corporel이라는 신체 부분들 사이의 고유한 역동적 통일성의 존재 방식, 나아가 성적인 의미까지, 이러한 현상들은 잘만 보면 그 속에서 앞서 형태심리학의 형태 개념이 의미하는 전체와 부분의 불가분적 통일성의 부여 방식, 혹은 전체는 오직 부분을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부분인 전체’의 통일성의 부여 방식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지각의 원초성은 어떤 특정 현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현상의 영역들을 관통하는 것이며, 그 결과 일체의 현상은 지각의 현상학의 범위 안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각을 일체 현상의 기초에 놓으려는 메를로-퐁티의 지각 현상학의 기획은 언어 현상 앞에서 어려움에 봉착한다. 무엇보다 언어는 지각으로

4) Merleau-Ponty (1989), p. 25 참조: “형태Gestalt는 [...] ‘요소들’을 ‘전체’에 의존하게 만드는 감각장의 자발적 조직이다. 이 조직은 이질적 질료 위에 얹히는 어떤 형식 같은 것이 아니다. 형식 없이는 질료도 없다. 다소간 안정적이고, 다소간 분절된 조직들만이 있다.”

5) 메를로-퐁티의 지각 이론을 상론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는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본 논문의 문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논의에 그치고자 한다. 메를로-퐁티의 지각 이론 전반의 문제의식을 위해서는 주성호의 논문을 참조하라. 주성호 (2003), pp. 107-127 참조.

6) 해당 저작은 전체 3부로 이루어졌는데, 제1부는 지각된 신체[고유한 신체]에 대한 기술, 제2부는 지각된 세계에 대한 기술, 제3부는 지각적 의식, 즉 지각, 정서, 사유와 말 현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되는’[스스로에 의해] 의식에 대한 기술임을 상기하라.

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적 고유성을 가진다. 가령, 지각은 몸을 가진 주체가 눈을 뜬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현상 영역인데 반해, 언어는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학습을 요하는 말하자면 ‘문화적’ 영역이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지각은 개인적 주관적 체험의 영역인데 반해,⁷⁾ 언어는 상호주관적 의사소통의 영역이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부분과 전체의 불가분적 통일성이라는 지각 대상의 고유한 통일성의 부여 방식이 언어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가령, 지금 나의 눈앞에 있는 이 책상은 그 독특한 색과 형태 그리고 질감으로 존재한다. 이 감각적 소여들이 없이는 이 책상도 없고, 이 책상을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각적 소여들이 오직 이러한 통일성의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반면, 내가 ‘책상’이란 단어를 말하거나 이해할 때, 이 단어를 통해 내가 말하거나 이해한 것[‘책상’의 의미]가 꼭 나의 그 발성이나 내가 들은 그 ‘음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나는 ‘책상’이란 글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그 단어를 말하거나 들을 때 가졌던 그 동일한 의미를 이해한다. 한 마디로 말해, 언어 현상에서 의미는 지각에서와는 달리 그것의 표현 방식과 더 이상 내적인 필연적 관계를 갖지 않는 듯이 보인다. 사실이 이런데 어떻게 언어를 지각의 범주 안에 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언어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회고적 *retrospective*’ 분석임을 면치 못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이미 형성된 말 *parole*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분명, 말은 한 번 형성[구성]되면, “자신이 우연의 산물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독립적 존재성을 획득하며, 이것이 말 없이 존재하는 [순수한] 사유 *une pensée sans parole*의 이상을 불러일으킨다.”⁸⁾ 의미(세계)를 ‘감각적’ 기호들[‘감각 세계’]와 분리시켜 이 기호들 너머에 있는 제이의 실재로 간주하려는 철학의 오래된 사유 경향이 바로 이러

7) Merleau-Ponty (1942), p. 228 참조: “나는 내가 지각하는 것과 사물 자체를 동일시할 수 없다. 내가 주시하는 대상의 붉은 색은 항상 나에게만 알려지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그 색이 다른 이들에게 주는 색 인상이 나의 것과 동일한지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들의 상호주관적 대면은 오직 지각 세계의 가치적 구조만을 대상으로 한다.”

8) Merleau-Ponty (1945), p. 221.

한 회고적 분석의 관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언어를 본래적으로[발생적으로] 사유하고자 하면 이러한 회고적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언어를 ‘살아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눈앞의 이 감각적 소여들이 매순간 ‘새로운’ 책상으로 다시 태어나듯이, 탄생하는 언어, 발생하는 의미의 매커니즘을 해명해야 한다. 사실, **모든 기성既成의 말과 의미들은 발생의 결과이다. 더욱이 한 번 발생한 말, 한 번 발생한 의미조차도 매순간의 사용을 통해 새로운 말과 새로운 의미로 끝없이 다시 태어난다.**

그렇다면 새로운 말, 새로운 의미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언어 현상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분석에서 이 새로운 말,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는 창조적 표현 현상은 실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에 따르면 창조적 표현 내지 원본적 말parole originaire의 차원에서는 표현[기호]와 의미의 구분이 더 이상 불가능하며, 이 양자는 앞서 언급한 지각 대상의 통일성 속에서 나타난다. 이를테면 예술적 표현의 경우들에서처럼, 즉 소나타의 음악적 의미가 소리들과 분리될 수 없듯이, 극 중 인물이 배우와 분리될 수 없듯이, 창조적 표현에서 의미는 표현과 분리될 수 없다.⁹⁾ 창조적 표현의 발생은 새로운 의미가 자신의 표현을 결여한 채 창조자의 사고 속에 ‘순수한 형태로’ 앞서 존재하고, 뒤이어 이 의미를 실어 나를 표현을 찾는 과정이 아니다. 그렇기는 커녕 “말과 의사소통의 제약에서 벗어나 대자적으로 실존하는 데 그치는 사고는 나타나자마자 무의식으로 사라지는데, 이것은 그러한 사고는 대자적으로조차 실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¹⁰⁾ 또한 창조적 표현은 소통의 측면에 있어서도 의미와 표현의 불가분적 통일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해된다. 창조적 표현의 소통은 의미를 결여한 표현[‘표현하는 것’]이 앞서 주어지고 이 표현을 매개로 청자聽者が 어떤 추론의 과정을 통해 해당 의미[‘표현되는 것’]에 도달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정의상 해당 의미는 발화자의 사고 속에만 있을 뿐이고, 청자의 의식 속에는 추론을 뒷받침하고 추론이 이르고자 하는 그 새로운 의미가 아직 부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문제의 의미가 청자의 의식 안에 ‘이미’ 있어서 추론이 가능했다면,

9) Merleau-Ponty (1945), p. 213 참조.

10) Merleau-Ponty (1945), p. 206.

그것은 더 이상 ‘새로운’ 의미, ‘창조적’ 표현이 아닐 것이다. 요컨대 이해가 얼마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청자는 창조적 표현을 ‘그 자체에 즉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창조적 표현은 표현적 통일성 속에서 발생하고 표현적 통일성 속에서 이해된다.

이렇듯 『지각의 현상학』에서 메를로-퐁티는 언어 현상에서 의미와 표현의 표현적 통일성을 간과해냄으로써 지각과 언어의 간극을 유래 없이 축소시켰다. 이미 형성된 말을 놓고 보면 기호와 의미의 구분이 가능한 듯 보이지만, 언어의 실제적 ‘삶’을 형성하는 창조적 표현은 이것과는 달리 표현과 의미의 통일성의 논리, 곧 지각의 논리를 제시한다. 말하자면 **창조와 발생의 국면에서 보면, 언어도 지각 현상인 것이다.** 하지만—이것이 문제다—언어의 고유성은 여전히 간과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닐까? 무엇보다도 언어에는 고유한 초월(성)의 구조가 있는 게 아닐까? 분명, 지각된 대상은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감각적 소여들의 합으로 결코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¹¹⁾ 지각도 초월(성)의 현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언어는 지각의 초월성과는 다른 초월성의 양상을 띤다. 지각[‘자연적 지각’]에 있어서 의미[지각 대상의 의미]는 시종일관 자연 세계의 지평에 머무는 반면, 언어에서 의미는 자연적 감각적 차원을 넘어 상호주관성의 지반인 공통의 문화 세계를 형성한다. 상기한 바대로 창조적 표현은 의미와 표현의 고유한 통일성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언어의 경우에 창조적 표현은 그 표현적 통일성 속에 표현이 속하는 지각의 층과 표현되는 것이 속하는 의미의 층의 본질적인 균열을 내포하고 있다. 지각 대상의[지각 대상 ‘으로서의’] 의미는 자신의 표현과 결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지만, ‘말없이 존재하는 [순수한] 사유의 이상’이 명시해주는 바와 같이 언어적 창조적 표현은 발생하자마자 그 의미를 ‘순수한’ 문화 세계에 양도한다. 무릇 창조적 표현은 기성의 의미 체계를 넘어섬으로써 발생한다. 하지만 언어의 경우 이 넘어섬은 표현의 층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변화된 의미적 체계로의 되떨어짐으로 귀결된다. 이렇듯 『지각의

11) “사물은 단순히 묶음bloc이 아니다.” “사물은 그 성질들을 완전히 정의하려면 주체에 대한 완전한 정의가 필요한, 의미가 전체 외양과 구분되지 않는 존재 유형이다.” 각각 Merleau-Ponty (1945), p. 376, 373 참조.

현상학』의 저자는 언어 현상에 본질적인 것으로 표현과 의미의 분화에 주목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고유의 철학 개념을 귀결한다.

지각[철학의 대상]과 이 지각에 대한 사유 혹은 말[철학]은 어떤 관계인가? 만약 사유가 언어를 필요로 하고, 언어는 다시 표현과 의미의 분화로 존재한다면, 언어와 이 언어로 표현되는 지각의 관계는 보편과 특수 그것이다. 말의 의미는 표현의 층위로부터 떨어져 보편적인 것의 차원에 머무는 반면, 개개의 지각은 사유되고 언표되기에 앞서 개별성과 특수성의 차원에 남아 있다. 말하자면 지각과 사유, 혹은 지각과 언어 사이에는 ‘이질성’이 존재한다. 『지각의 현상학』의 저자에 따르면, 우리는 지각에 대해 사유하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사유와 말은 순전히 언어적 의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결과 표현의 층위에 머물러 있는 지각에 가닿지 못한다. 요컨대 지각의 철학, 곧 지각에 대한 사유와 말은 지각을 언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며, “예술처럼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 *comme l'art la réalisation d'une vérité* 이지 선재하는 진리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 *est pas le reflet d'une vérité préalable.*”¹²⁾ 철학은 진리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진리를 ‘만들어낼’ 뿐이다. 그리하여 『지각의 현상학』의 저자에 따르면, 지각의 철학이 어떻게 ‘지각의’ 철학일 수 있는가는 애초 성립할 수 없는 물음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각의 철학은 철저히 사유와 언어의 논리 안에서 작동하는 지각의 ‘철학’일 뿐, 결코 선재하는 지각을 ‘반영하는’ ‘지각의’ 철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각 자체와 의미적 사유 혹은 언어적 의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어서 이것이 ‘지각의’ 철학을 불가능하게 한다. 철학은 ‘스스로에 대해서만’ 사유하고 말할 수 있을 뿐, 자신을 넘어 지각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우리는 지각에 대해 사유하고 말함에 있어 단지 사유와 말의 질서 안에서 언어적 의미의 자기 증폭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전히 ‘지각에 대하여’ 사유하고 말하는 게 아닐까?

12) Merleau-Ponty (1945), p. XV.

Ⅲ. 지각에서 표현으로: 『지각의 현상학』의 한계

『지각의 현상학』은 비록 언어를 지각으로부터 시작해 접근해 들어가는 ‘관점의 전환’을 이루었지만, 계속된 반성의 과정에서 메를로-퐁티는 이 저작에서 시도했던 분석들이 가진 한계를 점점 더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었다. 그는 『지각의 현상학』을 출판하고 난 몇 해 후[1951년], 끌레주 드 프랑스 교수직을 위해 교수 위원회에 한 편의 논문을 제출하는데, 이 논문에서 『지각의 현상학』이 봉착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그런데 이제 지각된 것 너머에 있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식의 장(거기서 정신은 참된 것을 소유하려 하고, 대상을 규정하려 하며,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으로부터 해방된 보편적 지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을 고려해보면, 지각의 질서는 단순한 외양을 이룰 뿐이고, 그야말로 순수 지성이 인식의 새로운 원천(세계와 우리의 지각적 친숙함은 그것과 비교할 때 무정형의informe 밑그림일 뿐인)이 되는 게 아닌가?¹³⁾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하나의 역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으로, 인식을 포함한 모든 경험은 세계와 나의 원초적인 관계인 지각에 뿌리박고 있고, 지각은 다시 개별적인 지각 주체가 속한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뿌리내리고 있다.—지각이 근본적으로 주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각의 주체는 인식의 주체이며 그런 한에서 지각적 상황의 특수성에서 해방된 보편적 지식과 관계한다. 그리하여 귀결되는 문제는 이렇다. 즉 보편적 지식과 관계하는 한 인식은 상황 예측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지각으로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 또한 세계와 관계하는 한 가지 양상일 뿐인 한에서 그것은 ‘사실상’ 지각적이다. 사실, 지각이 지각 주체와 상황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어서, 이러한 지각이 어떻게 우리를 보편성의 경험으로 이끌 수 있는지는 철학사를 통해 늘 회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맥락에서 우리를 지각의 제약에서 해방해 보편적인

13) Merleau-Ponty (2000), p. 41.

것으로 이끌어 줄 마음의 능력으로 지각과 대비되는 ‘지성’의 존재가 재차 요청되었다. 그러나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지성과 지각 사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다음의 사실, 즉 ‘참된 것’의 경험[인식]은[도] 결국 나와 세계의 원초적인 관계인 지각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요컨대, 그에 따르면, **진리를 소유하고자 하는 한, 철학은 모종의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적 삶에 참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철학은 나와 세계의 원초적 근원적 관계인 우리의 지각적 삶의 한 가지 양상으로만 실존할 수 있다.** 사실, 모든 인식이 지각적 차원을 가진다는 것은 『지각의 현상학』의 저자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논증하고자 했던 테제였다. 메를로-퐁티는 이것을 코기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도했다.¹⁴⁾

앞서 논의한 바대로, 사유 혹은 말과 지각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현상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우선 이것은 양자의 서로 다른 초월(성)의 양상을 반영한다. 사유 혹은 말은 우리의 실존이 감각적 세계를 넘어(언어적) 의미 세계와 관계하는 차원을 지시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우리는 지각을 넘어서 단번에 의미를 구성한다. 지각이 의미를 나타내게 하는 바로 그 순간 지각은 의미를 위해 지워진다.

언어의 경이는 언어가 자신을 망각하게 한다는 사실에 있다. 나의 눈은 종이 위의 글줄에 있고 내가 그 글줄이 의미하는 바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 종이, 종이 위의 글자들, 나의 눈, 나의 신체는 어떤 보이지 않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출조건으로서 거기에 있을 뿐이다. 표현은 표현된 것 앞에서 없어지고[삭제되고, s'effacer], 이것이 그 매개적 역할이 아무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이며, 데카르트가 어디에서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이다.¹⁵⁾

의미의 나타남[현출]은 “연출조건”으로서 지각을 필요로 하지만, 정작 그 나타남은 지각의 “삭제”를 통해 일어난다. 이 표현의 사건에 있어서는

14) 여기서 우리는 메를로-퐁티의 코기토 분석을 지각과 인식, 지각과 언어의 관계 문제에 한정해 다룬다. 『지각의 현상학』 안에서 논의된 코기토의 문제에 대한 보다 전반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Barbaras (1998), pp. 159-182.

15) Merleau-Ponty (1945), p. 459.

심지어 지각 주체인 신체의 고유한 발언권마저 무화되기에 이른다. 이런 점에서 만약 경험의 궁극적인 토대를 ‘주체’라 이룬다면, 표현의 주체는 신체도 세계도 아닌 그야말로 표현 자체이다. 그렇다면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원본적 말 혹은 창조적 사유가 증시해주는 사유와 말의 내밀한 관계가 이에 대해 답을 준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창조적 표현은 표현하는 것과 표현되는 것[의미]의 표현적 통일성에 기반해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표현적 통일성은 역설적이다. 우리의 사유는 말을 필요로 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 기성既成의 언어 체계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기성의 말과 언어 체계 안에 갇히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기성의 체계를 넘어선다. 말하자면 “사유는 말 속에서 스스로를 넘어선다.”¹⁶⁾ 사유는 넘어갈 데가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말의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넘어선다[새로운 사유가 발생한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새로운[창조적인] 언어, 새로운 사유, 새로운 의미는 기성의 것에 바탕해 기성의 것을 넘어서는 표현의 이 역설적이고 역동적인 운동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역설은 코기토의 고전적 개념에 대해 종래와는 다른 전연 새로운 이해를 준다. 흔히 나와 나의 일치로 정의되는 자기의식이 선재해서 말과 의미를 구성한다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정의된’[‘언표된’] 자기의식 자체가 이미 말일 뿐이고 언어적 의미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즉, 자기의식, 다시 말해 코기토의 고전적 개념이 가장 근원적인 사태로 간주하는 나와 나의 일치는 실은 오직 말의 수준에서만 참이 되는 것이다. “말 자체가 나와 나의 일치, 나와 타인의 일치(그 위에서 우리가 이 말을 정초하고자 하는)를 ‘가져온다.’”¹⁷⁾ 그런데,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이러한 ‘말해진’ 코기토 이면엔 우리의 모든 경험에서 기능하고 있는 ‘말해질 수 없는’ 코기토,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코기토[“암묵적 코기토 cogito tacite”]

16) Merleau-Ponty (1945), p. 449. 표현의 역설에 대한 보다 완결된 정의를 위해서는, Merleau-Ponty (1945), p. 445 참조: 표현의 역설은 “의미가 주어진 단어들과 이미 사용가능해진 의미들을 수단으로 해서, 자신이 번역되는 단어들의 의미를 역으로 원리상 넘어서고, 변형시키고, 고정하는 어떤 의도intention에 도달하는 것”이다.

17) Merleau-Ponty (1945), p. 449.

가 있다. 코기토는 그것이 ‘말해지는’ 한 결국 ‘의식’에 의해, 즉 ‘말해질 수 없는’ 참된 의미의 코기토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것일 뿐, 더 이상 참된 의미의 코기토도 “탈-자ek-stase”¹⁸⁾도 아니게 된다. 분석을 통해 밝혀지는 바에 따르면, 데카르트적 코기토의 명백한 한계는 데카르트가 본래적 의미에서의 코기토를 ‘말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가 데카르트를 읽으면서 얻게 되는 코기토는(나아가 데카르트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스스로의 삶을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고정하고, 객관화하고, ‘특성화’했을 때, 그가 표현을 위해 수행했던 코기토까지) 말해진, 단어 안에 놓인, 단어 상에서 이해된 코기토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것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코기토인데, 왜냐하면 우리 실존의 한 부분, 즉 우리의 삶을 개념적으로 고정하고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사유하는 우리 실존의 한 부분은 고정(화)과 사유를 벗어나기 때문이다.¹⁹⁾

데카르트적 의미의 코기토는 반성된 ‘코기토’이다. 그리고 모든 반성은 사유와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반성은 반성되는 것 전체를 소유한다. 그러나 반성은 결코 반성하는 자신을 소유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사유와 언어를 통해 소유된[반성된] 반성은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이 아니다. 한 마디로 말해 그것은 살아있는 ‘흐름’을 박탈당한 화석화된 관념일 뿐이다. 사실, 반성된 반성은 그 ‘유의미성’조차 진정한 반성, 즉 ‘반성하는’ 반성에 의존한다. 마찬가지로 말해진 코기토의 의미는 철저히 암묵적 코기토에 의존한다.

18) 이 용어는 시간성을 주관성[주체]으로 정의하기 위해 메를로-퐁티가 하이데거에게서 가져온 것이다. 『지각의 현상학』에서 전개된 주관성과 시간 분석에 대한 하이데거의 영향에 대해서는 Dastur (1994), pp. 19-32 참조.

19) Merleau-Ponty (1945), p. 460. 필자 강조. 데카르트적 의미의 코기토는 의식이 스스로에 대해 명석 판명한[절대적으로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 위에서 있고, 메를로-퐁티는 이것을 ‘의식이 스스로를 소유함[*possession de soi de la conscience*]’으로 정의했다. 반면, 암묵적 코기토 개념에 따르면, 의식은 시간(성), 즉 ‘자기 초월성[스스로를 넘어감]’으로 정의되고, 자기 초월하는 존재로서의 의식은 스스로를 소유할 수 없다. 달리 말해 자신과 ‘일치’할 수 없다.

[...] 결국 단어들, 예컨대 ‘코기토’란 단어, ‘존재한다’는 단어는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단어들은 나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고 어떤 익명적이고 일반적인 사유를 정초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모든 말에 앞서 내 자신의 삶과 사유에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 말해진 코기토가 내 안에서 암묵적 코기토와 만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단어들에서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할 것이고 데카르트의 텍스트를 읽지도 못할 것이다. 데카르트가 『성찰』을 쓰면서 찾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침묵의 코기토였다.²⁰⁾

나와 나의 일치하는 말해진 코기토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말해진 코기토를 포함하여 모든 의미는 암묵적 코기토와의 접촉을 필요로 한다.²¹⁾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이미 구성되고 이해된 말을 넘어서는 창조적 사유가 명시하는, 말을 통한 사유의 초월성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사유의 이 새로움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실로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암묵적 코기토의 기능으로 창조적 사유의 발생이 가능했다 해도 이때의 사유는 기성의 언어적 의미 체계를 벗어나 있어서 오직 ‘암묵적’ 코기토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그 실존이 지지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말 그대로 ‘의미 없는’ 사유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의미를 결여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사유는 그것이 표-출되건 *ex-primée* 아니건 말로서만, 의미의 담지체로서만 실존하는 것이 아닌가? 둘 중 하나다. 먼저, 암묵적 코기토가 말의 엄밀한 의미에서 ‘암묵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 코기토는 의미를 결여한 ‘사유’는 더 이상 사유가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로 인해 더 이상 ‘코기토’로서 실존할 수 없다. 다음으로 암묵적 코기토에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이 코기토는 분명 실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암묵적이지 않다. 그것은 한갓 이미 ‘말해진’ 코기토일 뿐이다. 요컨대 두 경우 모두 암묵적 코기토는 ‘코기토로서’ 실존할 수 없음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상의 논의는 암묵적 코기토 개념, 나아가 『지각의 현상학』 전체가 직면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말

20) Merleau-Ponty (1945), pp. 460-461.

21) 그러나 여기서 메를로-퐁티는 암묵적 코기토가 단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constitue*”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단어의 의미는 암묵적 코기토에게 대해 “분출하는 *jaillit*” 것일 뿐이다. Merleau-Ponty (1945), p. 462 참조.

해 준다. 문제의 어려움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왜 코기토의 실존이 창조적 사유에 대한 분석의 과정에서 부정되기에 이르는가? 메를로-퐁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한 작업노트에서 이에 답하고 있다. “내가 암묵적 코기토라고 불렀던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왜냐하면] ‘생각한다’란 관념(‘본다는 생각, 느낀다는 생각’의 의미에서)을 가지기 위해서는,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재성으로, 무엇 무엇의 의식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단어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²²⁾ 말하자면 **암묵적 코기토는 근본적으로 의식을 표현의 영역에서 분리시키는 데, 그리하여 의식을 대상, 즉 표현된 의미적 존재로서의 대상과 구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탄생 중에 있는 사유[창조적 사유]가 “의식의 침묵”²³⁾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한, 표현 혹은 말은 결국 이 침묵하는 의식의 대상으로 환원되어 지는데, 왜냐하면 의식, 즉 이 ‘사유 없는’ 사유는 모든 표현을 배제하는 데서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의식은 오직 자신의 침묵을 대상으로 변형시킴을 통해서만 자신의 고유한 침묵을 깰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의식은 더 이상 자신의 침묵에 속하는 것을 그 자체에 즉해 말할 수 없게 된다. 이리하여 결국 암묵적 코기토 이론은 『지각의 현상학』으로 하여금 이 저작이 극복하고자 내세운 관념론적 관점과 다시 만나게 한다. 분명, 메를로-퐁티는 “암묵적 코기토는 그 자신이 표현되어질 때만 코기토라”²⁴⁾고 강조해서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암묵적 코기토에서 표현으로의 이행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점에서 암묵적 코기토가 말해진 코기토와 ‘같은 의미에서의’ 코기토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뒷날 메를로-퐁티는 쓰기를, “『지각의 현상학』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나는 거기서 ‘의식’/‘대상’의 구분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²⁵⁾ **모든 어려움은 분석이 전제한 의식과 대상의 구분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의식과 대상의 구분은 표현을 결여한 ‘순수 사유’와 이러한 ‘순수 사유’에 의해 구성되는 의미적 존재인 ‘언어[말]’의 구분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일단 이

22) Merleau-Ponty (1964), p. 224.

23) Merleau-Ponty (1945), p. X.

24) Merleau-Ponty (1945), p. 463.

25) Merleau-Ponty (1964), p. 253.

구분이 이루어지면, ‘경험의’ 철학은 결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바로 이때 의식의 ‘침묵’과 ‘말’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심연이 가로 놓이기 때문이고, 이 심연은 그 자체로 경험 자체와 경험에 대한 철학 사이의 심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각의 현상학』의 ‘의식’/‘대상’의 구분[이분법]이 종국적으로 초래한 이러한 어려움은 메를로-퐁티로 하여금 표현과 의미의 고유한 통일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찾아 나서게 했다. 앞서 언급한 끌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직을 위한 논문에서 그는 말하고 있다.

지각 연구는 우리에게 ‘나쁜 애매성’, 즉 유한성과 보편성, 내부성과 외부성의 혼합만을 가르쳐준다. 반면 표현 현상에는 ‘좋은 애매성’, 즉 분리된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성취하는 어떤 자발성이, 복수의 모나드들, 과거와 현재, 자연과 문화를 하나의 직물 안으로 재결합하는 어떤 자발성이 있다.²⁶⁾

IV. 의미 지각

표현 현상을 의식의 작용[암묵적 코기토]에 귀속시킴으로써 『지각의 현상학』의 메를로-퐁티는 표현에 대한 자신의 모든 분석이 종국적으로 겨냥한 문제인 창조적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구성된 말에 대한 회고적 분석에 근거한 표현과 의미의 구분은 창조적 표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창조적 표현의 수준에서 볼 때 말은 단순히 사유[의미]의 표출ex-expression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사유 자신이다. 이렇듯 창조적 표현은 암묵적 의식conscience muette이란 개념을 무효화하고 의식을 표현의 영역 안에 위치시킨다. 모든 표현은 애초 창조적 표현이었다는 사실은 의식과 표현의 관계에 있어서 표현이 의식의 구성 작용에서 기인하기는커녕, 반대로 의식이 본질상 표현적임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이와 상관적으로 의식 존재를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표현의 역설’에 대한 기존의 정의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표현의 역설은 더 이상 우리가 “의

26) Merleau-Ponty (2000), p. 48.

미가 주어진 단어들과 이미 사용가능해진 의미들을 가지고서, 자신이 ‘번역되는traduit’ 단어들의 의미를 역으로 원리상 넘어서고, 변형시키고, 고정하는 어떤 의도intention에 ‘도달할’ 수 있다”²⁷⁾는 사실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번역”을 필요로 하는, 그러면서도 모든 표현을 결여한 의도란 한 마디로 말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현의 역설은 오히려 구성하는 의식의 작용 없이도 기성의[설립된] 언어langage institué 안에서 창조적 표현이 발생한다[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것은 『지각의 현상학』이 도달한 결론과 철저히 구분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이 저작이 창조적 표현을 기술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 저작에서 시도된 원본적 말에 대한 모든 기술이 이미 구성된 말을 매개로 해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지각 속에서 ‘탄생하는à l'état naissant’ 말이 문제일 때, 정작 분석이 대상으로 한 것은 이미 ‘탄생한déjà née’ 말이었다.²⁸⁾ 반면, 1950년대 들어 메를로-퐁티가 표현의 문제를 다시금 제기했을 때, 이것은 더 이상 의식에 의해 구성된 두 세계[자연 세계/문화 세계]의 말하자면 ‘수평적horizontale’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그것은 양자의 ‘수직적verticale’ 혹은 발생적génétique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근본적인 방식에서 자연으로부터, 자연의 한 가운데서 문화의 발생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²⁹⁾ 메를로-퐁티가 표현 연구의 선결 조건으로서 ‘환원’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게 요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일 우리가 언어를 그것의 기원적 활동에서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듯이 해야 하고, 언어를 환원(이것이 없으면 언어

-
- 27) Merleau-Ponty (1945), p. 445. 필자 강조. 우리는 앞 절에서 이 구절을 『지각의 현상학』에서 제시된 표현의 역설에 대한 보다 완결된 정의로 인용한바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정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곧, 만약 문제의 “의도”가 암묵적 코기토로서 그 자체로 ‘의미’를 결여한 것이라면, 어떻게 “도달한다”거나 “번역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 28) 이것이 바로 의식/대상의 이분법과 함께 해당 저작이 기초하고 있는 ‘자연 세계’/‘문화 세계’의 이분법의 최종적인 의미이다. Merleau-Ponty (1945), 2부 3장, 4장 참조.
- 29) E. Bimbenet는 인간학적 문제 지평에서 이 발생의 문제를 심층적이고도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E. Bimbenet (2004), 특히 pp. 141-142, p. 202 이하 참조.

는 우리를 자신이 의미하는 것으로 데려갈 뿐 [언어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에 종속시켜야 하며, 귀머거리가 말하는 이들을 바라보듯이 언어를 ‘주시해야’ 하고, 언어 예술을 다른 표현 예술들과 비교해야 하며, 표현을 하나의 무언의 예술로 봐야 한다.³⁰⁾

환원은 언어를 “귀머거리가 말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시하게 하면서 표현을 지각의 영역 안에 위치시킨다. 환원의 목적은 표현을 보다 철저하게 지각으로부터 출발해 이해하는 것이지 지각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앞서 언급된바 있는 메를로-퐁티의 자기비판(“지각 연구는 우리에게 ‘나쁜 애매성’만을 가르쳐 준다”)은 제한적인 의미만을 갖는다. 문제가 된 지각은 잘못 이해된 지각, 즉 『지각의 현상학』이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려 했으나 결국 실패한 ‘의식’/‘대상’의 이분법에 따라 이해된 지각일 뿐이다. 그리하여 메를로-퐁티가 ‘지각 연구’에 바친 『지각의 현상학』의 출판 이후 수년이 지나 표현의 문제를 다시 제기했을 때, 이것은 표현 분석을 근본적으로 심화함으로써 지각 연구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지 단순히 폐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³¹⁾ 그의 저작에서 언어학에 대한 언급이 최초로 나오는 40년대 후반의 한 논문에서 메를로-퐁티가 쓰듯이,

형태 혹은 구조 개념은 아마도 심리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언어학에서]도 유용할텐데, 왜냐면 두 영역 모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도하는 의식conscience rectrice의 순수한 현출이 아니라, 전체들, [즉] 그것의 고유한 원리에 대한 명시적 앎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행하면

30) Merleau-Ponty (1960), p. 58. 이와 거의 동일한 구절이 Merleau-Ponty (1969), p. 65에 있다.

31)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말의 언어학의 의미에 대한 르노 바르 바라스의 논평(이에 따르면, “형태심리학을 통한 우회는 지각의 현상학을 정초하게 한 반면, 말의 언어학을 통한 우회는 존재론에로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은 분명 일견 타당하지만, 50년대 초에 이루어진 말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연구는 ‘형태 Gestalt’에 대한 반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Barbaras (1998), p. 191 참조. 우리는 형태에 대한 반성이 해당 시기에 지각 분석과 말 분석에 있어서 공히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볼 때, 이 시기에 이루어진 메를로-퐁티의 표현 일반에 대한 분석에서 형태 개념의 중요성을 제대로 부각시킨 이는 오히려 Da Silva-Charrak이다. Da Silva-Charrak (2005) 참조. 특히 pp. 119-133을 보라(“소쉬르 읽기: 구조에서 형태로”)

서 알 수 있고 또 알 수 있어야 하는 전체들이기 때문이다.³²⁾

말에 대한 물음을 철저히 다시 제기하는 것,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이것은 결국 말 지각 *perception de la parole*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충실한 방식에서 말에 대해 묻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미 개념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알아야 할 것은 지각 너머에 있는 문화 세계의 '순수성' 안에 따로 떨어져 간직돼 있을 그런 의미가 더 이상 아니다. 이것은 이미 구성된 언어를 표현과 의미로 구분하는 회고적이고 추상적인 분석의 산물일 뿐이다. 진정 알아야 할 것은 말의 엄밀한 의미에서 '지각된 [지각되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지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의미의 본질 규정처럼 되어버린 '순수성'이란 관념[이미지]를 깨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해 1950년대 들어 메를로-퐁티는 소쉬르 언어학에 주목한다.³³⁾ 오늘날 언어 현상에서 의미의 '물질성'에 천착했던 이가 바로 소쉬르였던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1952년의 논문 「간접적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에서 소쉬르의 철학적 중요성에 대해 말했는데, 이 논문은 언어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소쉬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와 관련하여 매우 함축적인 논평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소쉬르를 통해 기호들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으며 각각의 기호는 하나의 의미를 표시하기보다는 그것과 다른 기호들 간의 의미 차이 *écart de sens*를 나타낸다는 것을 배웠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랑그 *langue*는 항 *termes* 없는 차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 랑그 안에서 항이란 항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들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관념이긴 하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 항 A와 항 B가 그 자체로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 한, 어떻게 그것들 사이에 의미의 대비가 있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만약 의사소통이 말해진 랑그 전체에서 이해된 랑그 전체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랑그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미] 랑그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의 비판

32) Merleau-Ponty (1966), p. 153.

33) 앞서 인용한 1947년의 논문에서 언어학과 관련하여 소쉬르는 한 번 언급되는데 그것도 별다른 강조 없이 언급되고 있다. Merleau-Ponty (1966), p. 152 참조.

은 제논의 역설에 대한 비판과 같은 유의 것이다. 곧, 제논의 역설이 운동의 실행으로 극복되듯이 이상의 비판도 말의 사용에 의해 극복된다. 랑그는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보다 선행하고, 저절로 습득되며, 스스로 자신에게 알맞은 설명을 제시한다. 이러한 순환논법은 아마 언어langage를 특징짓는 경이[놀라움]일 것이다.³⁴⁾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랑그를 차이들의 체계로 확립한 소쉬르의 발견은 기실 어떻게 의미 지각이 가능한가의 물음에 대해 결정적인 이해를 제공해 준다. 즉 이 관점은 의미를 의미들(이 의미들은 다시 그것의 감각적 기반 [‘음son’]과 아직 분리되지 않은 기호들 사이의 차이 위에 정초되는) 사이의 “차이”로 정의함으로써, 의미가 어떻게 지각 ‘안’에 거주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 준다. 여기서 유아의 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는 의미의 기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메를로-퐁티는 의미의 발생을 유아의 “옹알이abillage”³⁵⁾에서 “음소적인 대립oppositions phonématiques”으로의 이행에서 찾는다. 유아에게 있어서 이 음소적인 대립은 “말 사슬 자체를 통한 말 사슬의 지칠 줄 모르는 겹침[일치]recouplement inlassablement de la chaîne verbale par elle-même”³⁶⁾의 결과로 어느 날 ‘단번에d’emblée’ 나타난다. 소쉬르의 통찰이 가지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소쉬르의 직관은 분명하다. 곧, 최초의 음소적 대립과 함께 유아는 기호와 의미라는 최종적 관계의 토대로서 기호와 기호의 측면적 연관에 들어서게 된다—해당 랑그 안에서 이 측면적 연관이 받아들인 특수한 형식 하에서.”³⁷⁾ 이 “최초의 음소적 대립”은 선재하는 ‘의미’ 없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기호가 내부를 갖게 되고 결국 의미를 부르게 되는 것은 기호가 단번에 변별적이게 되기 때문이며, 기호가 스스로 짜이고 스스로 조직화되기 때문”³⁸⁾임을 말해준다. 여기서 언어 습득의 이러한 구조는 랑그를 마치 “출입문이 내부로부터만 열리는 영역”³⁹⁾이게 만

34) Merleau-Ponty (1960), p. 49.

35) Merleau-Ponty (1960), p. 51 참조: “자기[자신]에게만 말을 거는 것인 옹알이[...]”.

36) Merleau-Ponty (1960), p. 51.

37) Merleau-Ponty (1960), p. 51.

38) Merleau-Ponty (1960), p. 51.

39) Merleau-Ponty (1960), p. 51.

든다는 것은 사실이다. 분명 언어 습득은 일어나는데, 그것은 앞서 습득된 언어적 의미 체계에 기반하지 않고 ‘무의미한’ 용알이에서 단번에 의미 체계로의 진입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혹자는 여기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다시 말해 반복된 무의미한 용알이가 ‘무엇에 근거하여’ 최초의 언어적 의미 체계를 개방[습득]할 수 있는가를 물을 것이다. 그런데,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유아의 언어 습득과 관련하여 그 ‘가능 근거[토대]’를 묻는 이러한 물음의 방식을 통해서 현상이 해명되지 않는다. 하나의 운동체가 연장된 공간상에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물어서는 실재하는 운동이 이해되지 않는다.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동일적인 운동체와 연장된 공간의 구분 이전으로 돌아가 그 자체로서의 운동에 주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언어 현상에서 중요한 것은 제논의 역설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있듯이 랑그안으로의 들어섬이 ‘사실상’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출발해 의미 현출의 구체적인 양상이 어떤 것인지, 혹은 의미의 ‘실존’ 양상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 의미는 종국적으로 기호들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기호들 사이의 차이가 의미의 발생을 가능케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호들 사이의 차이는 그 자체로 의미라는 것도 말해준다. “만약 기호가 다른 기호들 위로 양각되어짐으로써만 어떤 것을 의미한다면, 그 기호의 의미는 전적으로 언어langage 안에 있고, 말은 항상 말 바탕fond de parole 위에서 노닐며, 말은 항상 말하기의 거대한 직물 안의 주름pli일 뿐이다.”⁴⁰⁾ 기호들 사이의 차이는 개별적인 각각의 기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기호들 전체는 그 자체로는 의미를 형성하지 않는다. 한편, 그러나 기호들 사이의 차이는 또한 개별적 기호들 너머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이 개별적 기호들이 없이는 문제의 차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호들 사이의 차이는 바로 기호들 ‘사이에’ 존재한다. 우리가 보는바, 메를로-퐁티의 이러한 언어 분석

40) Merleau-Ponty (1960), p. 53. Merleau-Ponty (1969), p. 169도 참조: “언어 안에서 그것[의미signification]은 기호들의 접합부에서 분출하고 기호들의 살적인 배열에 결합되어 있으면서 기호들 뒤에서 신비롭게 부화된다. 의미는 기호들 너머로 폭발하나 또한 기호들의 진동일 뿐이다 [...]”

은 그가 수행했던 형태 개념에 대한 분석과 맞물려 있다. 의미의 실존 방식은 정확하게 말해 형태심리학에서 말하는 ‘전체tout’의 그것이다. 상기한 바대로, 형태 개념은 ‘부분’의 합으로 환원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부분을 단적으로 초월하지는 않는,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구성하는 부분‘으로서만’ 존재하는 전체를 말하고 있다.⁴¹⁾ 형태로서의 의미라는 이 개념은 고전적인 의미 개념을 넘어서게 해 준다. 고립된 의미 ‘하나’ 혹은 기호 ‘하나’에 대한 ‘실체론적’인 정의는 결정적으로 불가능해지는데, 왜냐하면 이때의 ‘하나’는 랑그라는 전체 바탕 위에서 양각된 하나의 꼴figure이라는 의미에서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언어는 본질적으로 “불투명한 것”⁴²⁾으로 드러난다. 원자적인 ‘하나의’ 의미란 기실은 말에 지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완전한 파악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1950년대 초반에 메를로-퐁티가 이루어낸 언어 개념과 관련한 중대한 사유의 진전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의미 ‘지각’*perception du sens*에 관한 것이다. 분명, 감각적 세계에 맞서서 ‘의미의 우주’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의미의 우주는 여전히 감각적 세계 ‘안’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의미의 우주는 그것이 감각적 세계의 구성 요소라는 의미에서 단적으로 말해 감각적 세계 ‘이다’. 그 결과 만약 감각적 세계가 ‘침묵’으로 정의된다면, 언어 또한 그렇게 정의되어야 한다. “언어는 결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언어는 일련의 동작들gestes을 발명한다. 즉 언어 행위가 반복되고, 교차되고, 확인됨에 따라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의미의 우주의 외관과 윤곽을 제공하게끔 하는 충분하고 명석한 차이들을 제시하는 일련의 동작

41) Merleau-Ponty (1969), p. 53 참조: “[...] 랑그의 형태Gestalt가 있다. 생생한 현재 속에는 표현되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결국 언어는 어떤 것을 의미해야 하지 항상 ‘언어에 대한 언어langage sur le langage’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미와 기호는 지각적인 것이지’ 절대 정신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필자 강조) 마찬가지로 Merleau-Ponty (1969), p. 41, 51; Merleau-Ponty (1960), p. 111; Merleau-Ponty (1988), pp. 77-79 참조.

42) Merleau-Ponty (1960), p. 53 참조: “따라서 언어의 불투명성이 있다. 언어는 어디에도 순수한 의미를 위한 자리를 남겨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어적인 것에 의해서만 제한되며, 언어에서 의미는 단어 안에 박혀진 것으로만 현출한다.”

들을 발명한다.”⁴³⁾ 언어는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언어는 차이들의 ‘지각voir’만이 문제가 되는 ‘동작’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물 지각과 의미 지각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⁴⁴⁾ 이로써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원초성’으로 겨냥했던 자신의 지각 현상학의 애초 목표에 이르는 결정적인 일보를 내딛게 되었다. 의미를 ‘문화 세계’에 귀속시키고자 했던 종래의 의도는 이 ‘문화 세계’ 자체가 자연 세계의 한 차원임이 밝혀지면서 불필요한 것임이 드러났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연 세계는 ‘본질상’ 문화 세계와의 뒤엎힘으로서만 존재한다. 이렇듯 의미 지각이란 개념은 의미의 감각적 차원을, 다시 말해 ‘감각적인 것으로서의 의미’를 복원시킨다. 의

43) Merleau-Ponty (1969), pp. 46-47.

44) 우리는 이것이 문제의 시기에 메를로-퐁티의 최종적인 이론적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일 저작에서 메를로-퐁티는 이따금씩 이와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 주장도 전개한다. 가령 Merleau-Ponty (1969), p.181 참조: “사유된 것은 지각된 것이 아니고, 인식은 지각이 아니며, 말은 동작들의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말은 신체가 세계에 존재의 운반체이듯이 진리로 향한 우리의 운동의 운반체이다.” 사실, 지각과 언어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규정은 메를로-퐁티의 전 저작에 걸쳐 내내 반복 강조되는데, 이 ‘애매한’ 규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의 철학에 대한 해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어지는 절의 논의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현상적[양상적] 차이’와 ‘구조적 동일성’의 대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각의 현상학』의 저자는 전자의 차이에 분석상의 무게를 두면서 이를 자연 세계와 문화 세계[혹은 의식과 대상]의 실체적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해명하려 했다면, 「간접적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의 저자는 다분히 존재론적 관점에서 후자에 분석상의 강조점을 두면서 이를 ‘하나의’ 표현의 논리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의 변화는 자연 세계와 문화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귀결된다. 즉 초기 저작의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이 양자는 한편으로는 현상학적 의미에서 ‘상호 정초 관계’로 규정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자연 세계가 문화 세계를 정초하는 것으로 규정된 반면(Merleau-Ponty (1945), p. 340 참조: “인간학적 공간들은 자연적 공간 위에서 구성된 것으로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후설처럼 말해서, ‘비객관화 작용’은 ‘객관화 작용’ 위에서 구성된 것으로 주어진다.”), 「간접적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의 저자에게 있어 이 두 세계는 각각 공히 동일한 구조에 기초한 ‘고유한 것’으로 규정된다. Merleau-Ponty (1969), p. 112 참조: “반대로 우리는 문화 혹은 의미의 질서를 순수 사건(만일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의 질서에서 파생된 것도 아니고, 어떤 있을 법하지 않은 우연의 단순한 결과로 취급되어서도 안 되는 도래[사건, avènement]의 고유한 질서로 인정하기를 제한한다. 만일 우리가 인간 동작의 고유성은 그것의 사실적 현존을 초과해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의 의미를 입법하는 것임을 받아들인다면, 그로부터 모든 동작은 다른 모든 동작들과 ‘비교될 만하다는 것’,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유일한 구분론에 속한다는 것[...]이 귀결된다.”

미는 지각되는 것이다.⁴⁵⁾

V. 설립과 말의 목적론

표현 연구는 메를로-퐁티로 하여금 ‘의미의 감각적 차원’을 복원시킴으로써 언어의 현상(학)적 토대를 수립하는 데로 이끌었다. 그러나 의미는 직접적으로 지각된다는 이 사실은 지각과 언어에 공통된 경험의 구조만을 지시할 뿐, 지각과 언어 이 양자의 관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항상 문제는 지각된 세계와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말의 관계가 무엇이나이다. 이 문제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특유의 접근 방식은 다시 창조적 표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언어의 기원으로 소급해가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말의 탄생에 입회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언어에는 고유의 역사성이 있다. 말하자면 언어는 기성의 것을 통해 기성의 것을 넘어선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언어는 되잡기reprise와 예기anticipation의 통일의 항구적인 운동으로 실존한다. 사실, 창조적 표현이 명시해주는 바와 같이, 기성의 의미 체계를 통해 기성의 의미 체계를 초과하는 새로운 의미의 차원을 개방하는 것이 언어의 고유한 역동성인 한, 언어 안에는 되잡기의 계기와 함께 이미

45) 우리는 앞서 언어적 의미는 인간적 삶에서 ‘보편적인 것’의 차원을 드러내는 반면 ‘지각’은 그 자체로만 보면 이러한 보편성의 차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음의 물음이 제기될 것이다. 즉 언어적 의미가 실로 지각되는 것이라면 인간적 삶에 있어서 보편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사실, 우리가 보듯이, 여기서 이 물음은 종전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것의 경험과 관련하여 우리는 더 이상 『지각의 현상학』에서처럼 문화 세계의 ‘순수성’[문화라는 “공동 세계 monde commun”(Merleau-Ponty (1945), p. 217)]에 기댈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어떻게 의미가 ‘감각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것의 차원에 답할 수 있는나이다. 1950년대 초반의 저술들의 도처에서 메를로-퐁티는 보편성의 차원에 대한 긍정과 의미의 순수성에 대한 부정의 교차점으로 대화 현상에 주목했다. 그의 후기 존재론의 근본개념이 된 ‘살chair’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이와 관련해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한계를 벗어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용된 해당 시기의 저작들과 함께 특히 Merleau-Ponty (1969)에 수록된 「타인 지각과 대화」(pp. 182-203)을 참조하라.

예기의 계기가 작동하고 있다. 말하자면 창조적 표현 안에는 기지의 것 le connu과 미지의 것 l'inconnu 사이의 독특한 관계가 있고, 메를로-퐁티는 이것을 후설에 이어 “설립 institution”으로 개념화했다. 메를로-퐁티는 창조적 표현은 결코 무로부터 ex nihilo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구성된 언어의 되잡기로서만 발생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창조적 표현은 구성된 언어를 넘어선다. 그러나 오직 구성된 언어를 이용하고 그것과의 차이로서만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구성된 언어는 창조적 표현이 예기되는 토대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 창조적 표현은 획득되고 통합되면서 구성된 언어를 ‘재구조화’한다. 이것은 구성된 언어가 역으로 창조적 표현에 의해 설립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1954-1955년의 끌레주 드 프랑스의 강의에서 메를로-퐁티는 ‘설립’을 이러한 ‘의미의 침전 운동 mouvement de sédimentation du sens’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여기서 설립이란 말로 그와 관련하여 다른 모든 일련의 경험들이 의미를 가지며 생각할 수 있는 일관된 맥락 suite 혹은 역사를 형성하는 경험의 사건들(이 경험에 지속적인 차원을 부여하는)을 뜻하고자 한다. 혹은 잔존물이나 잉여로서가 아니라 어떤 일관된 맥락에의 호소, 어떤 미래에의 요청으로서 내 안에 의미를 가져오는 사건들을 뜻하고자 한다.⁴⁶⁾

설립 개념은 경험의 시간적 구조를 가리킨다. 해당 강의에서 메를로-퐁티는 이 설립 개념을 경험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데,⁴⁷⁾ 이것은 **모든 경험은 근본적으로 되잡기와 예기의 “동시성”⁴⁸⁾의 형식 하에 영구적인 생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되잡히는 것으로서 경험은 모든 선행하는 경험들의 지평 위에서 전개된다. 그러나 이 되잡기 자체가 도래할 진리에 대한 예기에 의해 동기지워지는 한, 경험은 설령 그것이 되잡기로만

46) Merleau-Ponty (1968), p. 61.

47) Merleau-Ponty (1968), p. 61 참조. 한편, 히로세 K. Hirose는 설립 개념은 엄밀하게는 “인간(성)의 역사적 역동성”의 질서를 나타내는 데만 유효하지만, 메를로-퐁티는 이것을 “역사를 결여한 채 나타나는 동물성”과 “초-시간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정밀 지식 savoir exact”의 질서에도 적용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Hirose (1993), p. 153 참조.

48) Merleau-Ponty (1968), p. 62.

존재한다 하더라도 항상 의미의 초과를 산출한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메를로-퐁티는 “진리의 자리는 어쨌든 그를 통해 각각의 말 혹은 획득된 진리가 인식의 장을 개방하는 예기(Vorhabe)와, 그를 통해 우리가 인식의 생성 혹은 타인과의 교제를 이끌어내고 이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수축시키는 [이 예기에] 대응하는 되잡기”⁴⁹⁾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언어에서의 되잡기는 기성의 것의 단순한 반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자체가 기성의 것을 넘어 새로운 의미를 마련하는 역설적 통일적 운동이다. 달리 말하자면, 언어는 스스로를 재구조화하는 살아있는 운동이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의 이 고유한 운동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물을 수 있다. 의식되건 그렇지 않건 매순간 새로운 의미의 차원이 개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혹은 그렇게 개방되는 의미와 지각은 어떤 관계인가? 우리에게 이 물음은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이 물음이야말로 언어와 지각의 관계를 밝혀주면서 그 귀결로 철학과 경험 자체의 관계 또한 해명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말은 의사소통의 부재néant 속에서 세워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최초의 말은 이미 사적 세계이기를 그친 감각적 세계 안에 뿌리를 둔, 이미 공동적인[공통적인] 행동들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분명, 최초의 말은 이 ‘원초적이고 침묵적인 의사소통’ 안에 자신이 거기서 받은 것만큼 혹은 그 이상의 것을 가져온다. 모든 설립institutions처럼, 최초의 말은 단순한 무리일 뿐이었던 것을 인간으로 변모시킨다. 최초의 말은 새로운 세계를 설립했고, 그 안에 존재하고 그것이 어떤 코페르니쿠스적 전복을 가져왔는지를 아는 우리에게는 설립과 언어의 세계를 자연 세계에 대해 이차적이고 파생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관점들을 거부하고 일종의 인간에 대한 숭배 속에서 살아갈 권리를 준다. 그러나 모든 숭배처럼, 인간에 대한 숭배도 밖으로부터의 차용으로만 산다. 인간에 대한 숭배는 만약 그것이 자신 안에 갇힌다면 자신에 대한 의식을 잃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전인간적前人間的 침묵을 모른다면’ 더 이상 인간에 대한 칭송이기를 그칠 것이다.⁵⁰⁾

여기서 최초의 말의 소통이 어떻게 가능한지[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

49) Merleau-Ponty (1960), p. 119.

50) Merleau-Ponty (1969), pp. 60-61. 필자 강조.

한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석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놓고 지금은 이 글의 중심 물음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결론적인 입장을 제시해보도록 하자.⁵¹⁾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언어는 자신 안에 지각의 “전인간적 침묵”에 대한 ‘앎’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침묵과 말의 구분이 여전히 보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흡사 『지각의 현상학』의 단순한 반복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각은 개별적, 주관적 체험 영역을 넘어 이미 그 자체로 의사소통(“원초적이고 침묵적인 의사소통”)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각은 그 자체로 의사소통이다. 지각은 이미 공동적인[이었던] 감각적 세계 안에서 작동하는 의사소통이다.⁵²⁾ 그리고 언어는 지각의 이 의사소통에 대한 앎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지각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해 주는바, 언어에 의한 지각적 의사소통의 보존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말은 어떤 의미에서 되잡는 것이고 넘어서는 것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감성적 확실성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³⁾

언어는 어떻게 지각의 감성적 확실성을 보존하고 계승하는가? 『세계의 산문』에 수록된 논문 「알고리즘과 언어의 신비」에는 이 물음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대답이 함축되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해당 논문의 주된 관심의 하나는 “지각 세계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언어 세계[말해진 세계, monde parlé]로 전환하는 승화sublimation의 길을 재발견하는 데 있다.”⁵⁴⁾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이 과정은 오직 “말의 기능을 지각의 질서와

51) 이 최초의 말의 소통 구조의 문제는 그 자체로 또 한편의 논문을 필요로 할 정도로 관련된 많은 문제 항들을 동반한다. 우리는 다른 기회를 보아 이에 대해 상론하고자 한다. 참고로 메를로-퐁티는 대화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사소통이 타인 지각 perception d'autrui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메를로-퐁티의 논문 「타인 지각과 대화」 참조.

52) 앞서 『지각의 현상학』에서는 의식과 대상, 자연 세계와 문화 세계의 이분법 속에서 지각[자연]을 개별성의 영역으로, 문화를 공동의[보편성의] 영역으로 파악했는데, 이제 지각 자체가 공동(성)의 차원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에 주목하라. 당연하게도 지각(의 차원)과 문화(의 차원)의 이러한 ‘만남’은 우리의 경험에 관해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사유의 논리를 요구할 것이다.

53) Merleau-Ponty (1969), p. 61. 필자 강조.

54) Merleau-Ponty (1969), p. 173.

유사하면서도 다른, 세계 정립의 되잡기이자 회복reconquête으로 기술할 때”⁵⁵⁾만 실현 가능하다. 우선, 말의 기능은 지각과 ‘유사’한데, 지각 또한 기성의 세계의 매순간의 재구조화 작용이기 때문이다. “지각은 우리를 이미 구성된 세계로 개방하고 세계를 재구성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반복redoublement은 세계가 지각에 앞서 제공된다는 것과 함께 우리는 세계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를 생산하고자 한다는 것을 뜻한다.”⁵⁶⁾ 그러나 다른 한편 말의 기능은 지각과 ‘다른’데, 왜냐하면 “지각의 이 침묵적 혹은 기능적 언어는 그것이 완수하기에 충분치 않은 어떤 앎의 과정을 가동시키기”⁵⁷⁾ 때문이다. 지각은 그 고유한 운동에 의해 우리 경험 안에 진리의 차원을 개방한다는 메를로-퐁티의 이 주장은 언어 안에서 설립이 가지는 쌍방향적 의미를 명시해준다. 한편으로 언어 안에서 설립은 구성된 언어를 재구조화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의미적 세계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말은 ‘지각 세계에 대한’ ‘물음interrogation’에서 발생하고 ‘지각 세계에 대해’ 말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설립의 운동을 종국적으로 동기지우는 것은 지각[지각된 것] 그 자체이다. 앞서 보았듯이 『지각의 현상학』은 ‘침묵’과 ‘말’의 구분으로 인해 어떻게 우리가 이 ‘침묵’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지각의 이 침묵은 단순

55) Merleau-Ponty (1969), p. 173.

56) Merleau-Ponty (1969), p. 174. 지각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제시된 “의식의 목적론”(Merleau-Ponty (1945), p. 340)에 대한 결정적인 비판이기도 하다. 위 저작에서 의식은 ‘즉자적en soi’ 존재인 자연 세계의 객관성을 ‘목적télos’으로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고—따라서 저 ‘목적’은 절대적 초월로 간주된다—, 이와 상관적으로 지각은 궁극적으로 단순한 심리학적 사실의 열로 떨어지는데 반해, 1950년대의 텍스트들에서는 지각은 언어와 함께 설립의 운동에 속한 것으로 정의되고, 그 결과 이때의 ‘목적’은 정확히 지각에 내재하는 것으로 판명난다. 말하자면 우리 경험의 객관성 혹은 진리의 차원은 세계의 즉자성 위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초월적 토대를 요구하지 않는, 우리 경험의 ‘자가 발생적sui generis’ 차원에 기초하는 것이다. 혹은 이것은 ‘상대주의’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은 오직 ‘즉자적 존재’의 개념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때만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이 개념이 근거를 결여한 것이라면, 여기서 메를로-퐁티가 세우고자 하는 ‘상대주의’야말로 우리 경험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적합한 개념일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57) Merleau-Ponty (1969), p. 175.

한 ‘침묵’이 아니라 ‘말 없는muet’ 가운데 여전히 ‘말하는’ 침묵—메를로-퐁티의 논문 제목처럼 “침묵의 목소리”—임이 드러난다. 우리가 지각 세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주시하면서’ 말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계는 그 자체로 어떤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아니 오히려 세계는 그 자체로 이미 말이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언어의 설립 운동은 결국 자기 자신[구성된 언어]와 지각 세계의 이 ‘말’ ‘parole’ du monde perçu을 동시에 되잡는 것임이 드러난다. 메를로-퐁티의 다음 비유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진리의 고유한 자리는, 설령 대상이 그것의 주름 안에 우리가 지각 하지도 못한 채 이용하는 관계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지라도, 사유 대상을 그것의 새로운 의미 속에서 되잡는 것이다. 사실은 이렇다. 이 순간에 어떤 것이 획득되고 참된 것이 존재하며 il y a du vrai [지각적] 구조는 변형되어진다. 진리에 대한 의식은 바다가재처럼 자신의 출발점으로 향한 채, 자신이 그 의미를 표현하는 이 구조에로 향한 채 뒷걸음치며 나아간다.”⁵⁸⁾

철학, 곧 우리의 지각(경험)에 대한 사유와 언어적 표현은 지각의 구조를 주시한 채 기성의 언어적 의미 체계를 되잡음으로써 새로운 의미 체계로 나아간다. 이때 만약 우리가 지각의 구조를 이미 형성된 언어의 의미 체계 위에 세우려한다면, 철학은 생동하는 지각의 존재[구조]로부터 동떨어져 언어적 ‘의미론적’ 세계에 갇히게 될 것이다. 반면, 우리의 실제 언어는 그 자체가 지각처럼 설립의 운동을 반복하며, 이 점에서 언어는 지각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그 자신이 지각인 한 언어는 ‘지각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방식으로 인해 철학은 ‘지각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유교로 남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메를로-퐁티는 우리의 살아있는 언어, 즉 창조적 표현이 증시해주는 언어의 이러한 ‘새로운 말하기’ 방식을 따르는 철학은 자신의 대상[지각]을 이미 구성되어 주어진 의미[개념]을 통해 “핀셋으로 집듯이 붙잡아서 고정시키지”⁵⁹⁾ 않을 것이라 말한다. 반대로 그 자체가 지각적 경험인 철학은 “우리 앞에서 세계와

58) Merleau-Ponty (1969), p. 179.

59) Merleau-Ponty (1964), p. 170.

사물이 이루는 결정 작용cristalisation을 다시 취하여 반복하거나 모방할”⁶⁰⁾ 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메를로-퐁티는 1950년대 초중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언어에 대한 자신의 분석의 성과를 최후의 저작에서 새로운 철학 개념으로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본 논문이 그에 이르는 사유의 심화 과정만을 제시한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또 다른 지면을 필요로 한다.

투 고 일: 2013. 11. 14.

심사완료일: 2013. 12. 10.

게재확정일: 2013. 12. 11.

박신화
한신대학교

60) Merleau-Ponty (1964), p. 136.

참고문헌

- 주성호, 『메를로-퐁티의 지각이론과 진리문제』, 『기호학연구』 14권, 2003, 107-127.
- Barbaras, R., *Le tournant de l'expérience, Recherches sur la philosophie de Merleau-Ponty*, Vrin: Paris, 1998.
- Bimbenet, E., *Nature et humanité: Le problème anthropologique dans l'oeuvre de Merleau-Ponty*, Vrin: Paris, 2004.
- Da Silva-Charrak, C., *Merleau-Ponty, le corps et le sens*, PUF: Paris, 2005.
- Dastur, F., “La temporalité chez Merleau-Ponty, Merleau-Ponty entre Husserl et Heidegger”, *Dimensions de l'exister, Etudes d'anthropologie philosophique (vol. V)*, Peeters: Louvain, Paris, 1994, 19-32.
- Hirose, K., “L'institution de l'oeuvre chez Merleau-Ponty”, *Merleau-Ponty, Le philosophe et son langage*, éd. F. Heidsieck, Recherches sur la philosophie et le langage 15, 1993.
- Merleau-Ponty, M.,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45; 류의근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2.
- _____, *Le primat de la perception et ses conséquences philosophiques*, Cynara, 1989(1946).
- _____, *Le visible et l'invisible*, Gallimard, 1964; 남수인 옮김, 2004, 동문선.
- _____, *La structure du comportement*, PUF, 1942; 김웅권 옮김, 2008, 동문선.
- _____, *Parcours 2, 1951-1961*, Verdier, 2000.
- _____, *Signes*, Gallimard, 1960; 김화자 옮김,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책세상, 2005.
- _____, *La prose du monde*, Gallimard, 1969.

_____, *Sens et non-sens*, Nagel, 1966; 권혁민 옮김, 서광사, 1984.

_____, *Merleau-Ponty à la Sorbonne. Résumés de cours 1948-1952*, Cynara: Grenoble, 1988.

_____, *Résumés de cours – Collège de France, 1952-1960*, Gallimard, 1968.

ABSTRACT

The Theory of Language and the Concept of
Philosophy in Merleau-Ponty

Park, Shin-Hwa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inquire into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itself and its linguistic expression in Merleau-Ponty's thoughts during the early and middle phases of his philosophy. Merleau-Ponty posed this question as fundamental from his early main work, *Phenomenology of perception*. For him, this question of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and its expression is that of the relation between perception and language. He analyzed the nature of language with our actual experience of it and, as a result, he discovered language as a perception. Meanwhile, he looked for the final basis of language in a pre-linguistic being; He denied a structural identity between perception and language as a result of self-consciousness [“cogito tacite”]. This means that philosophy becomes an auto-amplification of linguistic significations,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perception. However, Merleau-Ponty studied the problem of expression in earnest after writing *Phenomenology of perception*, and he criticized his own early position by the root. Now, it turns out that the expression is not a result of constitutive consciousness, but, conversely, the consciousness itself is expressive. The ‘institution’ here is a universal logic of expression. Merleau-Ponty established a structural identity of perception and language definitely with this concept. Language as expression is

structurally equal to perception as expression, and this means that language has a dimension of meaning which is expressed g ‘perceptually’. The phenomenon of creative expression shows directly such dimension of language. The outcome of this study on expression in the early and middle 1950s identifies a new concept of philosophy in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Keywords: Merleau-Ponty, Perception, Language, Expression,
Concept of Philosophy, Institution

